

종합병원 소아환자복의 사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서동애* · 천중숙* · 김인숙**

*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의 20개 종합병원과 220명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소아 환자용 환자복의 사용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아환자가 보편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소아환자복의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소아환자복은 대부분 성인용 환자복과 유사한 형태와 색상을 제공하였다. 소아환자복의 착용 여부 조사결과, 환자복은 상의가 하의보다 착용율이 높았으며, 12세 이하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착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자복에 대하여, 치수 불만족과 착탈의 불편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아환자복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점으로 치수, 청결성, 보온성, 촉감, 디자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소아환자들의 신체 성장에 따른 체형의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자복의 치수 및 기능성이 향상된 형태의 소아환자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환자들은 성인용 환자복과는 차별화된 형태 및 직물의 특성을 갖춘 새로운 디자인의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I. 서 론

병원은 환자의 질병 치료의 목적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착용하는 환자복도 환자의 활동과 치료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적인 감각도 반영하는 복합적인 기능복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복은 입원환자가 착용하는 특수목적 의류로 분류되며, 환자복은 일반의복과 달리 상처 부위, 상처 정도, 처치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추가된다. 환자복은 환자의 신체, 심리적 요구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체의 움직임을 속박하지 않고 환자에게 안락감을 느껴지도록 하며

편안함 속에서 효과적으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Kernaleguen, 1978). 또한, 환자의 질병 치료에 따른 특별한 의복요구와 심리적, 미적, 관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아용 의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어린이의 신체적인 발달과 감각적, 지적 능력의 발달, 운동발달을 돕는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입원환자들을 위한 소아환자복의 제공 및 사용실태와 현행 소아환자복에 대한 요구사항을 소아의 특성과 소아복에서의 고려할 점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사용중인 환자복의 사용 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환자복 제공에 대하여 병원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환자복 이용에 대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었다.

소아환자복 제공 실태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종합병원 9곳과 종합병원 11곳의 소아병동과 여러 병원의 환자복을 제작, 공급하는 제작사 1곳을 대상으로 소아환자복의 생산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각 병원과 제작사를 방문하여 소아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복의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였고 공급되는 환자복의 치수를 14부위에서 실측하였다.

환자복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재의 8개 대학종합병원과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아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배포설문지 248부 중 231부가 수거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19부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χ^2 -test, ANOVA, Duncan test를 실시하고, 빈도, 비율 등을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소아환자복 제공 실태

조사대상 병원의 소아병동 입원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5-8% 정도를 차지하였다. 세탁된 환자복은 1일 1회 환자복 공급실에서 공급되고 있었으며 병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1일 환자복 보유 개수는 입원환자의 2배수 정도였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환자복을 착용하였으며 환자복의 착용을 꺼리는 경우는 신생아나 2개월이하의 영아나, 아이가 싫어하는 경우 또는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이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착용/미착용을 비교한 결과 환자가 발열이 심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

1-1. 소아환자복 디자인

조사에 참여한 병원의 소아병동 환자복의 디자인은 성인용 환자복과 동일한 디자인이 대부분으로, 파자마형을 보유한 병원이 65%, 원피스형과 파자마형을 함께 공급하는 병원이 35%이었다.

원피스형을 제공하는 병원은 가장 작은 치수를 원피스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파자마형으로 제공하였다. 원피스형을 2가지 치수로 지닌 병원도 한곳 있었다.

상의의 형태는 성인용환자복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다. 목둘레 파임형태의 95%가 브이네크(V-neck)이며, 모두 앞트임에 단추가 3-4개 달린 형태였다. 소매형태는 모두 새틴슬리브(set-in sleeve)이며 소매길이는 팔목까지 오는 긴팔소매가 95%를 차지하였으며, 7부소매를 사용하는 곳도 한곳 있었다. 상의 주머니는 없는 경우가 80%를 차지하였고, 주머니의 위치는 허리부분에 양쪽에 달려있거나 왼쪽 가슴에 있었다. 하의의 허리여밈은 끈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75%), 끈과 고무줄을 병용하는 경우도 한곳이 있었다. 바지길이는 모든 병원이 발목까지 오는 긴형태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아용 환자복의 보유 치수는 2종에서 5종까지로 다양하였는데, 3가지 치수를 제공하는 병원이 전체 조사 병원의 70%로 가장 많았다. 색상과 무늬는 80%가 성인용과 동일한 병원로고가 새겨진 것으로, 보통 흰 바탕에 푸른색 또는 옥색이나 녹색 줄무늬와 함께 병원명이 세로로 쓰여진 형태였다. 소아용 무늬를 이용하는 경우는 흰 바탕에 분홍색 물방울무늬, 분홍색 바탕에 녹색과 파랑색 체크무늬, 연한 베이지 바탕에 격자무늬 위에 토끼, 곰이 있는 무늬, 흰 바탕에 여러 원색의 달무늬, 흰바탕에 푸른색 별모양이 격자로 있는 무늬 등의 색상과 무늬를 사용하고 있었다.

환자복 디자인에 남녀구분이 있는 병원은 10%였는데, 그 구분은 주로 색상으로 하였다. 남아의 경우 파랑색으로, 여아는 분홍색이나 주황색을 이용하여 구분하였으며 여아용 환자복의 보유수가 현저히 적은 상태였다.

1-2. 소아환자복 치수

조사 대상 병원이 제공하고 있는 소아용 환자복의 사이즈별 계측 치수와 소아환자복 제작사의 제작 표준 치수를 조사하여 한국소아발육표준치와 비교하여 본 결과원피스형 환자복의 경우 원형의 가슴둘레가 3세의 가슴둘레 치수보다 30cm정도 크게 제작되고 있고 파자마형의 경우도 소아신체와 많은 차이가 있어 소아용 환자복의 치수가 소아의 체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아의 치수에 적합한 소아환자복의 치수별 제작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병원에서는 특별히 치수를 나이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고, 환자복 자체에도 치수의 표시가 없어 대충 눈대중으로 입히고 있었다.

2. 소아환자복 이용 실태

설문대상의 소아환자는 남아가 58.8%, 여아가 41.2%이었고, 연령은 1개월에서 21세의 범위였으며, 평균 연령은 4.15세이고, 5세미만이 66.7%이었으며, 이중 50%는 2세 미만이었다. 신장은 39cm에서 168cm까지 분포하고, 평균 102.9cm이었으며, 80cm이하가 40.6%를 차지하였다. 체중은 2kg에서 54kg까지 있었으며, 평균 체중은 18.2kg이고 10~20kg의 체중을 지닌 집단이 전체의 46.1%를 차지하였다. 입원기간은 61.1%가 일주일 이내로 나타났다.

2-1. 소아환자복 착용 실태

환자복을 착용하고 있는 소아입원환자의 착용환자복의 형태는 파자마가 85.2%였으며, 원피스형

은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전체 입원 소아환자의 환자복 착용 여부를 상의, 하의로 분류(원피스는 상의로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상의의 경우 전체의 71.7%가 착용하고 있으나 하의의 경우 47.5%만이 착용하고 있었다. 환자복 상의가 하의보다 착용율이 높은 것은 상의 착용이 환자를 나타내는 유니폼으로서의 역할이 크고 하의의 착용이 입원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남아의 경우 원피스의 착용이 유의적으로 적은 것은 원피스가 여성적인 느낌을 주므로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에 따른 상·하의 착용실태를 보면, 상의 착용율이 2세미만은 54.2%, 2~4세미만은 72.2%, 5~7세미만은 80.0%, 8~12세미만은 9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12세이상에서 92.9%로 약간 떨어지게 나타났다($p<.001$). 하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착용율이 증가하다가 12세이상에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상의는 특히 2세미만의 집단에서 착용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하의는 5세미만에서 낮은 착용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파자마형 환자복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5세미만의 유아 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세미만 소아환자를 위한 환자복으로 원피스형의 제공이 많은 병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령에 따라 높아지던 환자복 착용율이 12세 이상에서 다시 낮아지는 것은 이 연령의 소아들은 소아환자복이나 성인환자복의 치수가 모두 잘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2-2. 소아환자복 착용의 문제점

환자복을 착용하지 않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설문한 결과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42.1%)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었고, '입고 벗는 것이 불편해서'(26.2%)가 그 다음을 차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자복에 대해 치수 불만족과 착탈의 불편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2-3. 소아환자복 착탈의 실태

환자복을 갈아입힐 때의 불편한 정도를 '가장어렵다'를 1로, '가장쉽다'를 4로하여 평가한 결과, 옷을 입힐때와 벗길때 팔을 끼우거나 빼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는 간호인이 환자 간호시 착탈의에 따른 불편도가 하의보다는 상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의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다.

<표 1> 착탈의시 동작별 불편도 (N=168)

착탈의 동작		어려운 순서 (비율)				평균 불편도
		가장 어렵다	어렵다	쉽다	가장 쉽다	
입힐때	팔 끼우기	52.2	31.1	8.9	7.8	3.28
	바지 입히기	19.8	10.5	47.5	22.2	2.28
벗길때	팔 빼기	31.0	44.6	16.7	7.7	2.99
	바지 벗기기	4.4	12.7	22.8	60.1	1.62

2-4. 소아환자복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응답자들은 현재 소아용 환자복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치수(31.0%)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으며, 그 외에 청결성(21.5%), 보온성(14.6%), 촉감(13.7%), 디자인(10.5%)의 순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표 2>.

<표 2> 소아환자복의 개선점 (N=219)

문제점	빈도	(비율)
치수	68	(31.0)
청결성	47	(21.5)
보온성	32	(14.6)
촉감	30	(13.7)
디자인	23	(10.5)
색상	14	(6.4)
무늬	5	(2.3)

이러한 결과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소아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환자복에 대한 다양한 치수의 요구로 설명될 수 있으며, 보온성과 촉감의 개선이 높게 나온 것은 환자복의 착용 대상이 소아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을 보완해주고 연약한 어린이 피부에 적절한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유아복의 조건(신인수, 1981)과 일치하는 것으로 소아용 환자복이 단순한 병원 내에서의 유니폼뿐만 아니라 유아복으로서의 기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소아환자와 간호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아환자복의 개선안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소아병동을 중심으로 환자복의 제공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자들이 평가하는 소아환자복의 사용상의 문제점과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아환자들의 신체 성장에 따른 체형의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자복의 치수 및 기능이 향상된 형태의 소아환자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환자들은 성인용 환자복과는 차별화된 형태 및 직물의 특성을 갖춘 새로운 디자인의 개선을 요구함이 나타났다.

특히 기저귀를 사용하며 스스로 옷을 입고 벗기 어려운 연령에 해당하는 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소아환자복의 치수 및 디자인 개선이 시급하며, 5세 이상에서 12세 미만은 신체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연령대이므로 적어도 2개 이상 치수의 환자복을 제공한다면 소아환자들의 환자복 착용 비율을 높여 입원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수향(1993), 소아과 병동 환자복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분(1992), 지체부자유자의 의복구성을 위한 착탈의 동작연구-뇌성마비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명은(1986), 소아병동의 유니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1994), 환자복 설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인수(1981), 피복위생학, 서울, 동남문화사.
- 양진숙, 김희영(1990), 환자복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정맥주사를 요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전주
우석대학 논문집 제12호.
- Boettke, E. M. & Zook, M. O.(1956), Dress Design with Self-help Features for the Preschool Child, Journal of Home Economics, 48(8).
- Chun-Yoon Jongsuk & Jasper Cynthia R.(1994), Development of Size Labelling System for Women's Gar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8.
- Kernaleguen, A.(1977), Clothing Designs for the Handicapped, The University of Alberta Press.